

"조민이 맞다는거냐 아니냐" 정경심 재판 증인에 판사 버럭

“증인 왜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고 있나요? 말이 됩니까?”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이 증인 A씨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서울대 공익법 인권센터 직원인 A씨는 정 교수 딸 조민씨의 인권센터 인턴활동 의혹에 대해 증언 하러 나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민씨와 공모해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했다. A씨는 또 “조민씨가 연구보조원 활동을 서울 집이나 카페에서 했다고 정 교수 측이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정 교수로부터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스펙 관리’를 위해 연구보조원에 조씨 이름을 올려둔 뒤 허위로 수당을 받게 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2013년 5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뤄진 이 연구를 위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연구원과 2명의 연구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책임자를 자신으로 두고 공동연구원으로 당시 동양대 소속 외국인 교수 2명을 기재했다. 하지만 연구보조원이 누구인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연구보조원 2명이 동양대 학생 1명과 정 교수의 딸 조씨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조민씨가 인턴을 했다는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주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가 끝난 뒤 저녁 뒤풀이 자리에서 조씨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 때는 “당시 세미나에 조씨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당시엔 조 전 장관의 딸인지 몰랐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진 뒤) 언론에서 사진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 그 학생이 조씨인 줄 알게됐다”고 진술했었다.

장은 목소리를 높이고 “무슨 말이냐. 아까는 ‘조국 교수 딸 입니다’라고 했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임 재판장은 지난달 29일 조씨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증인신문 때도 장 교수가 검찰에서 서명까지 했던 진술 조서를 부인하거나, 정 교수와 조민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몇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사실관계만 대답하세요”라고 했었다.

A씨의 진술이 바뀌자 검찰

은 조씨의 2009년 5월 한영외고 졸업앨범 사진을 제시하면서 “(졸업) 당시 촬영된 사진”이라며 “증인의 (검찰 조사 당시) 말과 달리 긴머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졸업 사진에 조씨는 단발이었다. A씨가 조씨를 세미나에서 봤다는 것이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러자 A씨는 “저는 긴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재차 “가슴 정도 내려오는 머리를 말하냐”라고 하자 A씨는 “그렇다”고 했다.

조씨는 이 세미나 이후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조씨의

고교 동기장모씨는 증인으로 나와 “조씨를 본 적 없다”고 했다. 장씨는 검찰에서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본 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거짓인데...세미나는 나 혼자 갔는데, 완전 거짓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민이 연구보조? 한번도 못봐, 정경심이 수당송금 시켜"

동양대 학생 법정 증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딸 조민(28)씨를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려줬지만,

▲ 14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작 학교에서 조씨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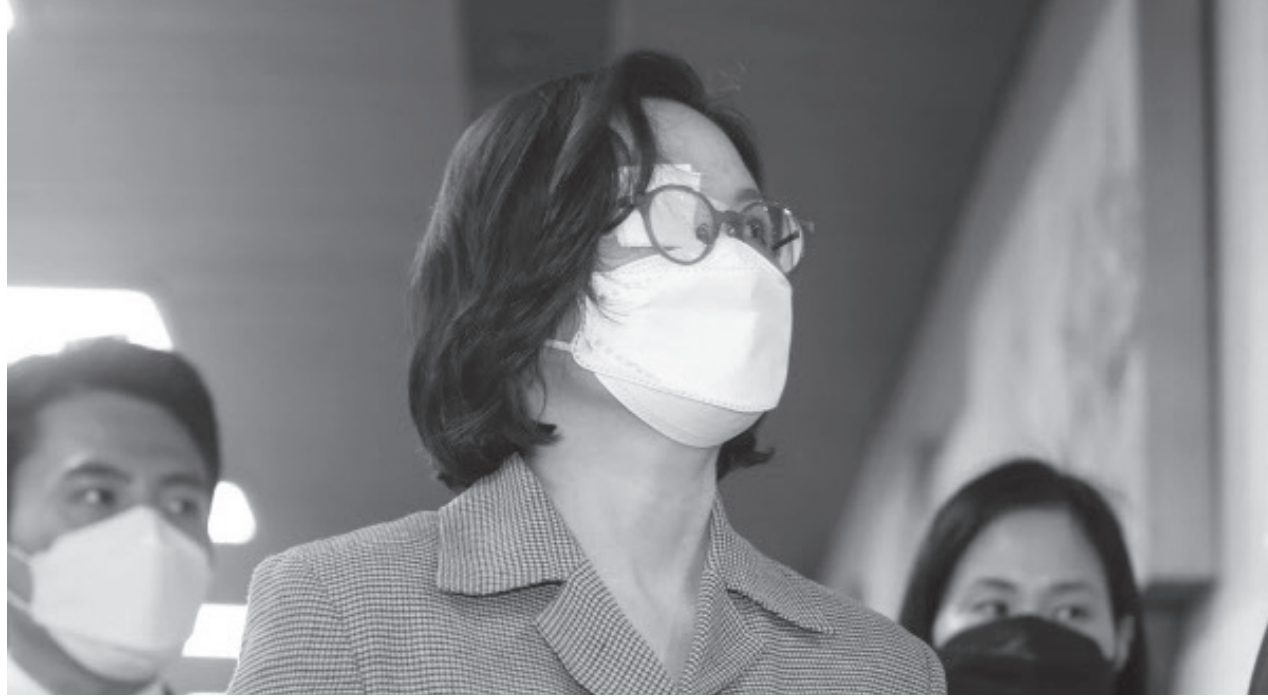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14일 진행된 정 교수 공판에서 ‘증인은 동양대에서 조민을 본적이 있냐’ ‘직원이 나 조교로부터 조민이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없지 않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

정 교수는 사업 공모 신청서에서 연구책임자인 자신 앞으로 250만원, 공동연구원인 외국인 교수 2명에게 100만원씩을 인건비로 잡았다. 연구보조원은 1명당 월 10만원씩 8개월간 총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정산이 이뤄질 때는 조사연구비 명목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연구보조원 2명에게 80만원씩 지급했다. 인건비 80만원을 더하면 조씨를 포함한 연구보조원은 8개월간 모두 160만원씩을 받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외국인 교수(100만원)보다 60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A씨는 “(2014년) 정 교수님이 조민씨의 계좌를 알려주시고, 그 계좌로 예전에 입금받았던 153만원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하셨다”고도 했다. 이어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가 A씨를 동양대 영어프로그램의 보조연구원으로 올려 받은 허위 인건비라고 보고 있다. 그 돈이 조민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이날 A씨에게 (검찰) 진술과 오늘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졌다. 무엇이 맞냐”고 했고 A씨는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고 했다. 검찰이 “그럼 뒤풀이에서 조씨가 ‘조국 교수 딸 조민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냐”고 하자 A씨는 “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언론에서 조국 교수 딸 조민이라고 계속봐서...”라고 했다.

그러자 임정엽 재판장이 개입해 “아까는 (뒤풀이에서) 조씨가 ‘조국 교수 딸 조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은 나중에 언론에서 듣고 알게됐다는 게 말이 맞냐”고 했다. A씨가 “정확한 기억이라고 할 수 없어서”라고 하자 임 재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윤미향, 신종 보이스 피싱" 할머니 기부금을 왜 본인계좌로 받나

통합당 "신종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어" 민주당에는 "공천 사과하고 강력 징계하라" 요구

미래통합당은 14일 정의기

역연대 이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 명의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윤 당선자가 자신 명의의 기부금 계좌 3개를 사용해 모금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거액의 공금을 받아 법인 이사회, 감사 등 관련로부터 자유로운 개인 통

장으로 임의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다"며 "윤 당선자가

국회를 '위선과 사기의 전당'으로 오염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윤 당선자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진

상조사 및 제명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장 부대변인은 "윤 당선자를 감싸는 것 자체가 위안부 (...10 페이지에 계속)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www.songlaw.ca

부동산, 상법, 회사법, 이민법, 유언/상속법

T: 403-764-0231 / E: daniel@songlaw.ca

#312 - 14 Street NW, Calgary, Alberta T2N 1Z7